

결국 이익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

KOSPI 5,736pt(+3.3%), KOSDAQ 793pt(+1.4%)

① 해외 상황

AI 신용위험 지속에도 실적이 투자심리 개선

-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 +1.0%, S&P500 +0.3%, 나스닥 보합으로 혼조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3%로 AI 관련주 경계감 지속했으나 코어워브 +1.7% 반등. 미-이란 중재안 보도에 국제유가 -1.8%,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1%로 안정되며 위험 회피 심리 일부 완화. 다만 중재안은 최종 합의가 아닌 보도 단계
- 장 마감 후 발표된 AI 기업들의 실적이 핵심이며 긍정적. 슈퍼마이크로컴퓨터는 AI 서버 수요 확대에 FY1Q27 잠정 매출 전망을 기존 145억~155억 달러에서 185억~195억 달러로 상향. 매출총이익률 전망도 10.4~10.8%에서 12.0~12.5%로 개선. 스페이스 X는 3Q26 매출 145.8억 달러(+161.0% YoY), AI 사업 매출 75.6억 달러(+830.0% YoY) 기록. AI 부문 영업이익도 4.3억 달러로 흑자 전환. 두 종목 오버나잇 주가 상승. AI 인프라 수요의 지속성과 투자수익률에 대한 우려를 실적이 일부 완화

② 수급

외국인 약 1조원 순매수, 반도체 대형주 동반 매수

- 거래소 합산 KOSPI 기준 외국인 약 +0.9조원, 기관 +0.1조원 순매수. 개인 -1.5조원 순매도. 전일 약 0.8조원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 우위 전환.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약 0.8조원 순매수 집중. 주목할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동반 순매수. 그동안 외국인은 SK하이닉스 매수 과정에서 삼성전자 매도를 이어가는 등 종목별 차별화. 금일 9월 9일 이후 처음으로 양사 동반 순매수 확인.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위험 인식이 일부 완화됐을 가능성. 다만 최근 순매수와 순매도가 반복된 만큼 추세적 매수 전환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기타법인(자사주매입) SK하이닉스도 금일(집행률 기준 98.56%) 완료. 다음주 실적 발표 이후 컨콜에서 주주환원 정책 확인하며 바이백 수급 복귀 대기

③ 특징업종

- 1) **재건**: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압박과 중재 기대감에 재건 관련주 강세. 유신, 전진건설로봇, 에스와이스틸텍 등 상승. 실제 종전 합의나 재건 사업 수주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나 협상 진전 기대가 관련주에 반영
- 2) **전력기기**: LS ELECTRIC 3Q26 영업이익 2,335억원(+131.7% YoY)으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북미 데이터센터 중심의 수주 확대와 고부가 전력기기 매출 증가가 실적 견인. LS ELECTRIC, 지엔씨에너지, LS 등 강세.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이 실제 수주와 이익으로 확인되는 업종 중심의 차별화

④ 이벤트

빅테크 실적과 국내 금통위

- 1) 미국 주요 기업 실적: 메타·테슬라(10/21) 2) 한국 금융통화위원회(10/22) 3) SK하이닉스(10/27), 삼성전자(10/29) 실적 컨퍼런스콜 및 주주환원 정책 확인

⑤ 상황

결국 이익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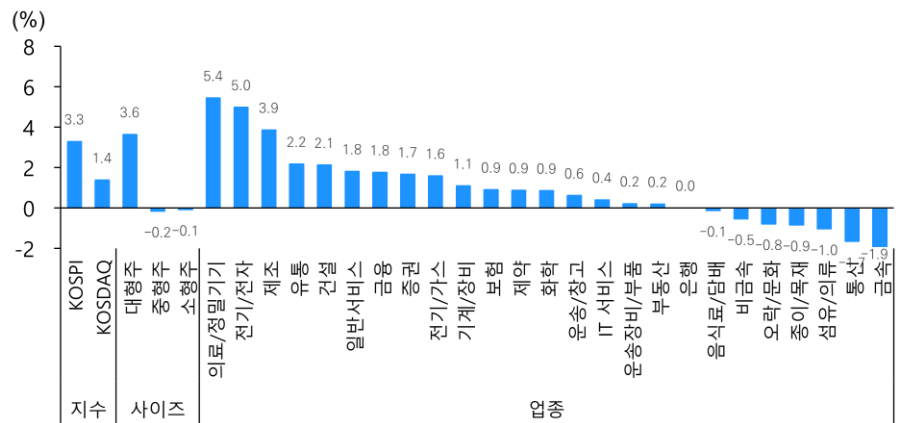
- 금일 KOSPI 3.3% 반등하며 전일 급락분 상당 부분 회복. 장중 상승폭을 +4.8%까지 확대하며 매수 사이드카 발동. 일본 (+0.9%), 대만(+1.3%) 대비 강한 반등으로 최근 한국 증시의 상대적 급락에 대한 되돌림 성격도 확인. 특히 외국인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의 핵심 변수가 여전히 수급임을 재확인
- 실적) 시장이 AI 산업에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 기업 실적 발표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 **첫째**, 코어워브 등 일부 인프라 기업의 신용위험이 AI 생태계 전반의 자금조달 위축으로 확산될 것인가. **둘째**, 막대한 설비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회수될 수 있는가. 금일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실적 전망 상향은 견조한 인프라 수요를, 스페이스X의 AI 사업 매출 급증과 흑자 전환은 수익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사례. 신용위험의 해소와는 구분해야 하지만 AI 투자수익률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완화할 근거
- 수출) 국내에서도 실적을 뒷받침하는 근거 확인. 금일 발표된 10월 1~20일 수출은 616억 달러(+105.4% YoY)로 동기간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은 275억 달러(+222.5% YoY)로 전체 수출의 44.7% 차지.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도 +65.9% 증가. 최근 국내 반도체 주가가 급락하는 동안에도 실제 업황과 이익을 뒷받침하는 수출 지표는 견조했던 상황. 미국 AI 기업의 실적과 국내 반도체 수출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표
- 수급)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신흥국 내 피어인 일본 및 대만 대비해도 하락 속도가 유독 빨랐음(EM 지수 편출 우려가 있는 인도네시아도 아님에도). 외국인의 반도체 집중 매도에 자사주 매입 공백과 국내 개인 및 연기금 매수 여력 부족이 겹치며 이익 훼손보다 주가 조정이 선행된 성격. 금일 외국인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순매수는 의미 있는 변화.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종료도 이미 예상된 수급 변수인 만큼 새로운 악재로 보기에는 제한적. 다만 매수 공백이 완전히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외국인 매수세의 '지속성'이 중요
- 전략) 12MF 이익 전망의 구조적 하향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24MF PBR은 모두 1배 미만. 향후 자 기자본 증가의 기반인 이익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의 신뢰도 역시 높다는 판단. 수급 불안에 따른 추가 변동성은 불가피하나, 이익 전망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투매에 동참할 실익은 극히 제한적
결국 지금은 시장의 의심을 실적으로 증명해 나가야 할 시간. 금일 미국 AI 기업 실적과 국내 반도체 수출이 첫 번째 답변을 제시했다면, 향후 메타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은 그 답변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과정. 주주환원과 중간선거 종료는 추가 상방압력. AI 신용위험이 실제 투자 축소와 2027~2028년 메모리 EPS 하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변동성은 중기 투자 매력을 훼손하는 요인보다 수급 정상화 과정의 진통으로 판단. 기존 포트폴리오를 악으로 깎으로 유지하며 낙폭 과대 대형주 저가매수 및 2차전지(ESS)-반도체 소부장으로 알파 추구. 이익으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734	1,052
외국인	6,573	-1,729
개인	-11,272	524
거래대금	171,664	49,264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